

“이 무대엔 연기가 없습니다”... 장애 배우들이 전하는 삶의 기록

전남도교육청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삶을 연기하지 않는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새전문화예술극단 예인방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목포시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장애인식 개선 연극 ‘우리도 꽃이었다’를 공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새전문화예술극단 예인방이 주관하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협력한다.

작품은 뇌병변·지체·청각·지적 장애를 지닌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장애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살아온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난다는 점에서 기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차별화된다.

연출을 맡은 예인방 대표이자 배우 김진호씨는 “장애를 설명하는 순간 사

전남도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 연극 ‘우리도 꽃이었다’

24일 목포 남도소리올림터 공연 “강의보다 깊은 공감”

람을 사라지고 증상만 남는다”며 “설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자체를 무대에 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연은 ‘이 무대엔 연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쉽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배우들은 각자의 삶을 담담한 목소리로 풀어낸다.

전동휠체어를 탄 박상준은 “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존재의 의미를 되짚고, 청각장애 화가 박진은 그림을 그리며 “당신은 나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시력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온 이영자는 “누군가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사회”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김대중 전남도교

육감이 무대에 올라 배우들과 함께 관객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 행정 책임자와 장애 배우들이 같은 무대에 서는 장면은 포용 교육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일”이라며 “특수교육은 배려가 아닌 존엄과 공존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강의나 영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예술을 통해 공감과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를 이



해하라고 요구하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관객이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관객들은 “백 번의 강의보다 연극 한 편이 더 깊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명수 기자

‘책 읽는 동구’ 입증...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읽는다
독서실태조사 결과, 독서율·독서량·독서 인식 모두 전국 상위

광주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와 동구 ‘구민 독서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동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독서율과 독서량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연평균 독서량은 2.4권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구가 실시한 구민 독서실태조사에서는 연간 독서율이 48%, 연평균 독서량은 4.3권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이를 통해 ‘전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독서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했다.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 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의 독서 유용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약 67% 수준이었으나, 동구 조사에서는 구민의 83.1%가 독서를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8%가 공감한다고 답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독서문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동구는 이 같은 결과를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책 읽는 동구’ 정책의 성과로 보고 있다. 동구는 2020년부터 책을 매개로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인문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 정책을 전개해 왔다.

현재 동구는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민 권장도서(올해의 책)’ 선정 ▲작가와 대화 및 독서토론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독서교실 ▲지역서점과 협력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독서문화 행사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독서 정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서점, 도서관, 학교, 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읽는 사람만의 취미’가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독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조사에서도 동구의 책 관련 인문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0.5점으로 나타나,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2026년 ‘책 읽는 동구’의 중심 주제를 ‘AI 시대, 사람답게 선택하는 삶’으로 정하고, 급변하는 AI·기술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태도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독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제3회 영산포 봄 벚꽃 버스킹 축제, 오는 28일 개최

벚꽃과 감성 음악이 어우러진 봄 축제, 버스킹과 체험행사 풍성

전남 나주시가 봄을 맞아 오는 3월 28일 영산포 풍물시장 일원에서 ‘제3회 영산포 봄 벚꽃 버스킹 축제’를 개최하고 감성 음악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한다.

20일 나주시 이창동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봄 자원인 벚꽃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집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행사는 당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나주시립극단 사전 공연을 시작

으로 어쿠스틱 기타, 해금 연주, 샹송과 록 공연, 퓨전 국악, 트로트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키다리 풍선 아저씨 공연을 비롯해 캘리그래피와 캐리커처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아름다운 버스킹 선율이 어우러지는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따스로운 봄을 느끼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선 이창동장은 “영산포의 아름다운



벚꽃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봄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지

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전·근현대 문학자산 수집합니다”

광주문학관, 25일부터 31일까지 매도·기증 신청받아

승 시조’ 등 주요 근현대 초판본, ‘호남문화’ ‘호남공론’ 등 지역 문예지 및 정기간행물, 지역 작가 친필원고, 편지, 졸업앨범 등 유일본 자료, 문학 관련 연극·영화 자

료, 악보 원본 등이다. 문학사료는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기증·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기증자에게는 명패 부착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한다.

/전혜경 기자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은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문학관은 최종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문화사 연구와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화로 새긴 내 삶과 이웃과 마을”

영암문화관광재단, ‘마을로 가는 문화예술’ 참여자 모집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 4일간, 마을주민 대상으로 한 ‘2026 김준권 화백과 함께하는 판화버스킹’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망호리 휴양마을 체험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손과 나무판이 만나 마을을 기록하는 ‘판화 마을 기행’을 주제로 한다.

산을 바라보며 오르고자 하는 열망과 희망을 표창하여 나무판에 새겨온 김준권 화백은 이제 영암으로 돌아와 지역을 향한 헌신의 길을 걷고자 한다. 작업실을 비우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풍경을 넘

어 이웃의 관계의 결을 들여다며, 그 과정을 판화를 재료 삼아 선과 여백으로 옮겨 서로의 세계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김보배PD는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마을의 흙어린 이야기를 수놓고, 그 숨결을 나무판에 새기고 찍어내며 영원히 기억 할 현장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3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사업팀 (061-471-9516)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